

구로공단 그리고/혹은 G밸리

김목한*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위원

e-mail: hookman@si.re.kr



1. 구로공단의 여러 가지 이름

사실은 구로공단이라는 명칭을 쓰기가 살짝 불편하다. 구로공단은 공식명칭이 아니기 때문이다. 구로공단은 언제나 구로공단이었지만 한 번도 공식적으로 구로공단이었던 적은 없었다. 구로공단은 본명이 된 별명이다. 구로공단은 원래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산업단지로 조성되었던 한국수출산업공업단지에서 비롯되었다. 한국수출산업공업단지는 1963년부터 10여 년간 모두 6개의 단지로 조성되었는데, 1,2,3단지는 서울 구로구에 조성되어 구로공업단지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인천시에 조성된 4단지는 부평공업단지로, 5,6단지는 주안공업단지로 불려 왔다. 즉, 구로공단이라는 이름은 서울 구로구에 자리 잡은 한국수출산업공업단지 1,2,3단지의 별칭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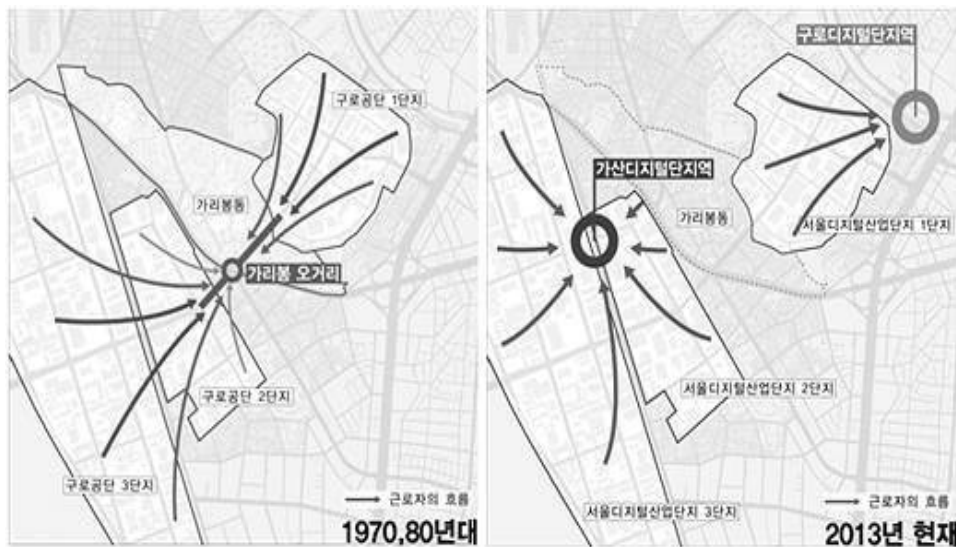
구로공단이 자기만의 새로운 공식명칭을 얻게 된 것은 기껏해야 15년 전의 일이다. 1990년대 말을 기점으로 구로공단의 산업구조가 공업단지에서 디지털 정보통신 산업 중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럿거스(Rutgers) 대학 계획 및 공공정책 박사
- 최근 연구: G밸리 飛上 프로젝트 본격 추진을 위한 산업현황 조사(2014), 서울시 IT서비스 기업 입지변동 요인 분석(2014) 등

심으로 급속하게 재편되면서 이러한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한 명칭을 가져야 한다는 요구가 힘을 얻게 되었고, 2000년이 되어서 처음으로 구로공단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라는 새로운 공식 명칭을 얻게 되었다.

하지만 구로공단의 별명 목록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구로공단이 변해왔던 만큼 구로공단이 자리 잡은 서울시의 상황도 변해왔기 때문이다. 1970년~1980년대 버스로 출퇴근을 하던 시절 구로공단의 중심은 구로공단 밖에, 정확하게는 구로공단 1단지와 2,3단지 사이에 있는 가리봉 오거리였다. 한때 1974년 전철 1호선 가리봉역이 2,3단지 사이에 자리를 잡고, 1984년 전철 2호선 구로공단역이 1단지 인근에 개통되면서 점차 지하철이 이 지역의 주된 공공교통으로 부상하게 된다. 2000년 가리봉역이 지하철 7호선 개통에 맞춰 환승역이 될 즈음에는 사람들의 흐름이 지하철 역세권을 중심으로 재편되어, 한 때 주간 6단지에 이어 ‘제7공단’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던 가리봉 오거리 일대의 중심성은 찾아보기 어려워졌다고 한다.



자료: 김경민(2013)

[그림 1] 구로공단 근로자의 흐름 변화

여기에 서울시 행정구역의 변화가 뒤를 이었다. 원래 구로구에 있어 구로공단이라는 명칭을 얻었지만, 1995년 구로구에서 금천구가 분리되면서 1단지는 구로구에, 2, 3단지는 금천구에 남게 되었다. 행정구역 분리와 역세권의 발전은 새로운 명칭에 대한 수요로 이어졌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라는 새로운 명칭을 얻고 불과 몇 년 후인 2004년, 1단지에 면한 구로공단역이 먼저 구로디지털단지역으로 역명을 변경하였고, 1년 후 가리봉역도 현재 지명인 금천구 가산동의 이름을 따 가산디지털단지역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지금도 구로공단에 근무하는 이들은 대부분 지하철로 통근하고 있고, 공식명칭은 아니지만 내리는 역을 중심으로 구로공단을 나뉘어 1단지 쪽을 구로디지털단지, 2,3단지 쪽을 가산디지털단지라고 통칭하곤 한다.

2000년대 말부터는 이곳을 ‘G밸리’로 개명하자는 요청이 새롭게 등장하여 현재까지 세를 불리고 있다. ‘G’는 구로, 금천, 가산 모두의 첫 이니셜을 빌려온 것이고, 밸리는 실리콘밸리를 넘어서는 정보통신산업의 클러스터로 부상하자는 뜻을 담아 만들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아직은 생소하지만 이 지역의 미래 정책과 계획을 조금 앞서 이야기하는 이들에게는 이제 익숙해진 명칭이다. 몇 년 후에는 이 지역을 구로공단이라는 별칭 대신 G밸리란 별칭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까? 아직은 모를 일이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자. 꾸준히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고 새로운 이름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지역이란 무엇일까? 지역의 오래된 이름을 계속 다른 별명으로 바꾸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가장 손쉬운 답은 그 지역이 계속 변화하고 있기에 예전의 이름이 금방 낡아서 지역의 최근 모습에는 어울리지 않게 되어버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답은 적어도 구로공단에는 반쪽짜리 답이다. 구로공단의 개명이 계속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반쪽의 답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밸리 변하는 바람에 변하기 어려웠던 나머지 반쪽을 가감 없이 모두 담고 있는 지역, 구로공단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각은 여기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달리 말하자면 새로운 명칭이 계속 생겨나는 데도 불구하고 ‘구로공단’이라는 이름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으며, 구로공단이라는 이름이 남아있는 한 새로운 명칭은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것 같다는 말이다.

과연 그러할까, 그렇게 될까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은 이 원고의 범위를 넘어선다. 하지만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구로공단의 역사를 꿰뚫는 한 측면

을 간단하게라도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구로‘공업’단지에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이르기까지 예전의 이름들과 새로운 이름에 계속 투영되었던 구로공단의 핵심적인 지역적 정체성, 다시 말해 구로공단의 산업에 대한 이야기 말이다.

2. 다양하고 중층적인 구로공단의 산업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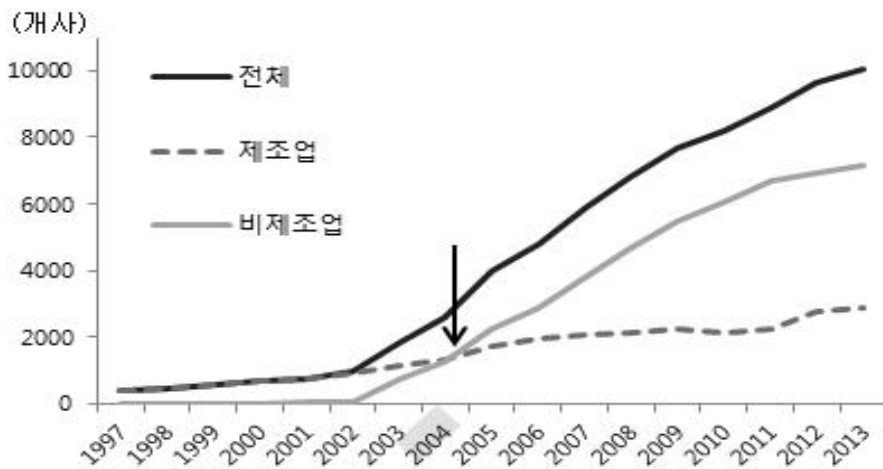
처음에 말했듯 최근에 구로공단을 구로공단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2000년대 구로공단 지역은 서울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유례없이 가장 빠르게 성장한 지역 중 하나였다. 이는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IT/SW산업이 급속히 성장한 것에 일부 원인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지역이 그 당시 기능해진 아파트형 공장의 공급을 통해 IT/SW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장소를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라는 이름은 예언과도 같이 들어맞았고 구로공단은 다른 국가산업단지와 유난히 다른 산업구조를 가진 별종이 되었다.

구로공단의 비제조업 부문은 2000년대 초에 급속히 성장하기 시작해서 2004년을 기점으로 업체 수에서 구로공단의 제조업 부문을 넘어서기에 이른다. 그 결과 구로공단은 주요 국가 산업단지 중에서 유일하게 사무직과 연구·개발직의 비중이 70%를 넘어 생산직의 비중을 압도하는 지역이 된다. 최근 구로공단에 대한 이미지의 대부분은 이러한 비제조업 부문의 성장에 기인하고 있다.

2010년대 들어 구로공단은 새로운 모습을 보인다. 의류공장의 재고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업단지 안에 들어섰던 의류아울렛이 2단지를 중심으로 대형화, 복합화하면서 이 지역의 주요한 기능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IT/SW산업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혼합으로 구성된다면 아울렛은 온전히 서비스업의 영역이며, 어찌 보면 구로공단이 서비스화되는 추세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변화가 바로 이 부분일 것이다. 여기까지가 변화의 반쪽이다.

[그림 2]에서 살펴볼 수 있는 변화의 나머지 반쪽, 구로공단의 오래된 이미지가 머무르고 있는 곳은 제조업 부문이다. 비제조업 부문이 급속하게 성장했고 그 덕에 구로공단의 산업구조가 빠르게 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된 것은 사실이나, 다른 한편으로 2000년 이후 구로공단의 제조업 부문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수적으

로 보면 구로공단의 제조업체는 소폭이기는 하나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지금은 더 중립적인 느낌의 지식산업센터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었으나, 아파트형 공장은 원래 명칭이 지칭하는 대로 IT/SW산업뿐만 아니라 소규모 ‘공장’이 들어가기에도 좋은 건물 형태였다. 실제로 100여 개가 넘는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섰고, 아직도 서울시 내 대규모 제조업체의 상당부분이 이 지역에서 가동되고 있다.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e-Cluster에서 작성

[그림 2] 구로공단 산업체 산업구성 변화 추세 (1997년~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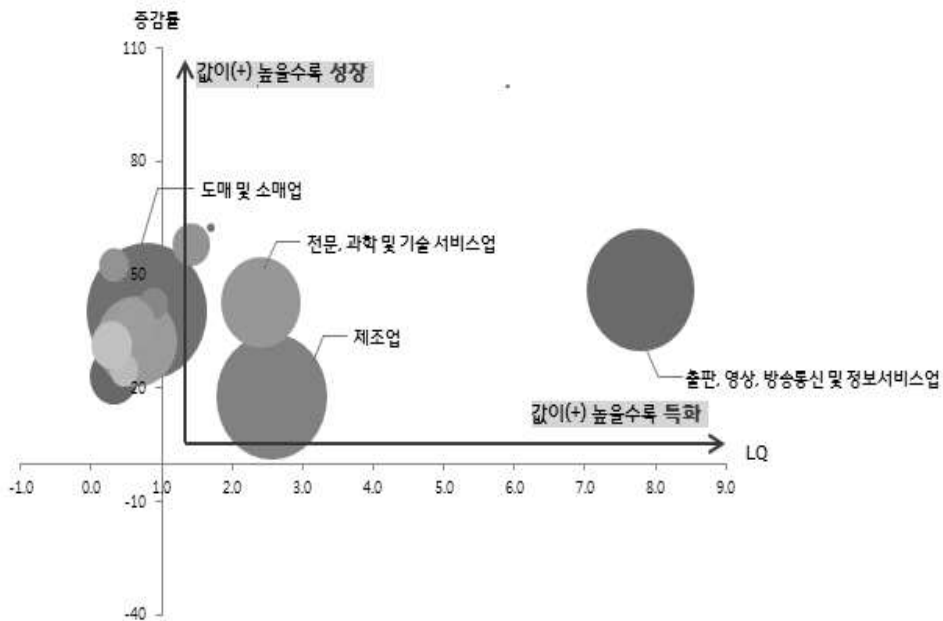
두 쪽을 맞추어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보통 산업구조의 변화는 천천히 일어나기 마련이고, 그에 따라 보다 최신의 산업이 예전의 산업을 온전히 대체해 나가기 마련이다. 구로공단에서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일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다. 섬유봉제 산업에서 시작된 구로공단은 석유화학, 전기전자, 인쇄출판, IT/SW 등 계속하여 새로운 산업을 받아들였고, 초기 산업들은 이제 상당부분 대체되었다. 하지만 적어도 2000년대 이후부터는 산업의 대체보다 공존이 주된 추세였다. 이는 최근 구로공단의 성장이 몹시도 빨랐기 때문이다. 새로운 산업은 오래된 산업이 낡아 대체되기 전에 글자 그대로 입체적으로 그 위에 중첩되면서 발전해왔고, 덕분에 구로공단은 어느 한두 개의 산업으로 특징짓기에는 너무 크고 다양한 산업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구로공단은 용도지역상 서울시 면적의 5% 미만인 준공업 지역에 속해 제조업과 생산

기능이 허용되는 곳이며, 동시에 다른 산업이 들어가는 것이 허용된 지역이다. 달리 말하면 구로공단은 서울시 대다수 지역과 달리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 모두 법제상 입지가 가능한 곳이며, 이러한 배경이 현재 이 지역 산업의 다양성과 성장을 설명하는 하나의 요인임에 틀림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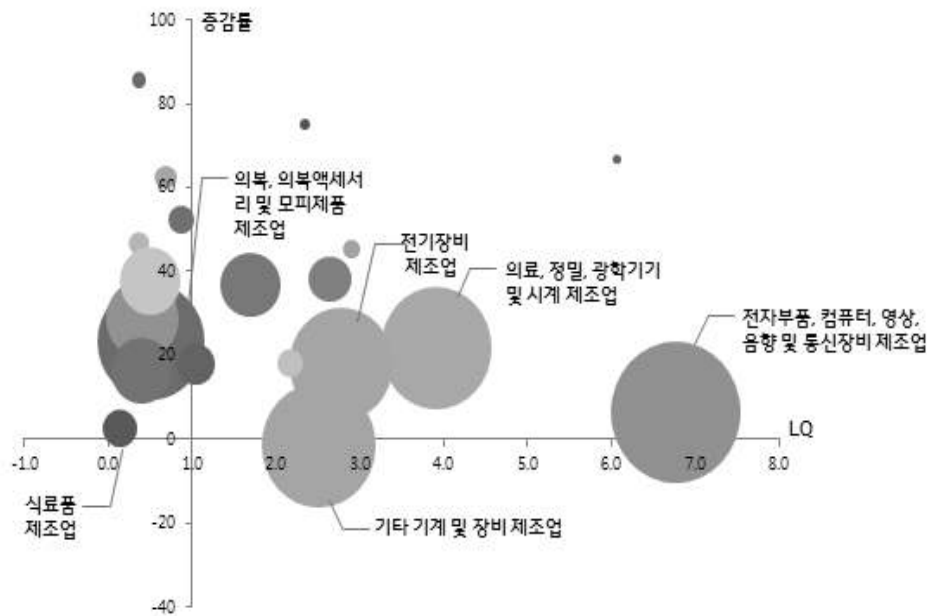
구로공단이 자리 잡은 가산동과 구로3동을 대상으로 산업 특화도와 지난 5년간 성장률을 기준으로 산업을 유형화하고 산업 비중을 비교해보면 이 지역이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첨단 서비스업에 특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제조업에 우위가 있다는 점 또한 명확하다. 제조업을 더 잘게 쪼개보면 이 지역의 역사가 보다 뚜렷하게 드러난다.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은 이제 더 이상 이 지역의 특화산업이 아니다. 하지만 전기장비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등 전기전자와 IT산업은 여전히 이 지역의 특화산업이다. 정밀기기, 장비 쪽의 성장이 더 빠른 경향은 있으나 전반적인 서울시 제조업의 쇠퇴를 이 지역 자료에서 찾아보기는 어렵다. 성장률이 낮을 뿐 구로공단 대부분의 제조업은 지난 몇 년간 소폭이나마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요컨대 구로공단은 서울에서는 드물게 제조업을 포함한 거의 모든 산업이 성장해온 지역이다.

구로공단 전반에 산업이 동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아파트형 공장이 주를 이루는 1단지와 3단지 상부는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 주요 산업이며, 2단지는 아울렛을 중심으로 하는 도소매업이 주를 이루고, 아직 예전의 모습이 많이 남아있는 3단지 하부는 제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큰 추세일 뿐, 실제 산업의 다양성은 단지별로, 블록별로 보다 복잡하다. 일례로 IT/SW나 아울렛 만큼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구로공단은 서울이라는 큰 시장을 담보하는 몇몇 산업의 물류 중심지이기도 하다. 지난 몇 년간 구로공단에서 가장 빨리 성장한 산업이 도매업이었다는 점은 이런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대규모의 인쇄나 출판 물량이 필요한 학습지 업체, 신문사 등의 업체가 구로공단, 특히 3단지에 제법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러한 업종은 아울렛과 같이 소비자 친화적인 기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잠재력에 관심을 기울일 가치가 있다.



자료: 전국사업체조사(2013)에서 작성

[그림 3] 구로공단 산업대분류별 사업체 특화도, 성장률 및 비중 (2013년)



자료: 전국사업체조사(2013)에서 작성

[그림 4] 구로공단 제조업 산업중분류별 사업체 특화도, 성장률 및 비중 (2013년)

3. G밸리라는 이름, 혹은 그다음

끝으로 다시 이름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 G밸리라는 명칭은 지금까지의 구로공단 별칭과 뚜렷한 차이가 있다. 국가가 먼저 규정한 공단과 산단이라는 공식명칭을 변주한 기존의 별칭과는 달리 G밸리라는 명칭에는 공단과 산단이 없다. 이를 대신한 것은 실리콘밸리라는 세계적인 발전 모형에 대한 욕망이다. 언제나 별칭은 구전으로 만들어지곤 했지만, 이번만큼은 예전과 달리 처음에 민간이 만들어 온 이름을 거꾸로 공공이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여전히 구로, 금천, 가산의 흔적은 남아있으나, 이는 더 국제화된 느낌의 이니셜 ‘G’뒤로 한껏 물러나있다. G밸리는 무엇보다 현재진행형인 명칭이며 새로운 미래를 전제로 하는 목표지향적인 이름이다.

구은정은 「우리들의 구로동 연가」에서 “이렇게 구로는 서울이라는 거대한 권력의 도시 외곽에서, 그 도시에 포함될 수 없지만 도시가 유지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모인 공간 이었다”고 썼다. 그리고 묘하게도 그 결과 현재 구로는 적어도 산업에서는 서울에서 가장 다양한 잠재력을 갖춘 공간이 되었다. 문제는 그 잠재력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어떻게 다양한 산업들 간에 시너지를 불러일으킬 것인가 하는 데 있다.

최근 들어 구로공단, 아니 G밸리에는 다행스럽게도 서비스업의 우위를 말하던 목소리가 잦아들고 제조업의 부활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더 정확하게는 사물인터넷, 웨어러블과 같은 새로운 성장분야에서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융합, 도시 제조업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꽃을 피우고 있다. 모든 도시가 제조업의 생산 공간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도시도 제조업의 새로운 실험을 마다하고 미래를 이야기할 수는 없는 시기이다. 구로공단이 G밸리로 해야 할 일이 아직 한참 남아있는 이유다.

구로공단이라는 이름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 남겠지만 G밸리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살아남을지 우리는 아직 알 수 없다. 이 지역은 또 다시 변화할 것이며, 새로운 목표에 따라 앞으로 또 다른 이름이 필요하게 될지도 모른다. 웬지 구로공단의 이름 만들기는 아직 한참은 계속될 것 같은 나쁘지 않은 예감이 든다. 그래도 그때까지 지금 여기 이 지역에 가장 어울리는 명칭은 구로공단도 아니고 G밸리도 아닌, 구로공단 그리고/혹은 G밸리가 맞을 것 같다. 여전히, 둘 다 공식명칭은 아닌 채로 말이다.

참고문헌

1. 구은정, 2009, 「우리들의 구로동 연가 - 구로공단과 구로디지털산업단지 사이 월드」, 희망제작소
2. 김경민·박재민, 2013, 「리쌍킹 서울 - 도시, 과거에서 미래를 보다」, 서해문집
3. 박배균 외, 2014, 「산업경관의 탄생 -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본 발전주의 공업단지」, 알트
4. 성공회대학교 노동사연구소, 2012, 「디지털시대의 구로공단」, 한국학술정보
5. 성공회대학교 노동사연구소, 2013, 「디지털 시대의 노동자들」, 한국학술정보
6. 안치용 외, 2014, 「구로공단에서 G밸리로 - 서울디지털산업단지 50년 50인의 사람들」, 한스컨텐츠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서울통계 <http://stat.seoul.go.kr/>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한국산업단지공단 <http://www.kicox.or.kr/>

한국산업단지공단 e-Cluster <http://www.e-cluster.net/>